

2017년 7차 자활고용주거분과 회의록

일 시	2017년 6월 27일(화) 10:00 ~ 12:00					
장 소	수원시휴먼서비스센터 중회의실					
참석자(총10명) 9/14 공(0/2) 민(9/12)	성 명	확인	성 명	확인	성 명	확인
	김상기(공공)	X	이윤순(공공)	X	오승환	O
	장미선(분과장)	O	김소현	O	이재근	X
	신민우(총무)	O	김 석	O	한상수	O
	김민정(서기)	X	임기동	O	김병국	X
	안지만	O	김소영	O	주승훈(배석)	O
회의주제 및 안건	<p>1. 보고 및 공유 가. 기관의 행사 및 사업 공유 나. 전차회의 결과 공유</p> <p>2. 논의 사항 가. 복지일자리 체험 릴레이 운영 평가 나. 2017년 수원시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계획 변경 및 과정평가 모니터링</p> <p>3. 기 타 가. 차기회의 일정</p>					

회 의 결 과

1. 보고 및 공유	<p>가. 전차회의 결과 공유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이견없음
2. 논의 사항	<p>가. 복지일자리 체험 릴레이 운영 평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긍정적으로 평가 - 참여하면서 이거 빨리하고 가야지 하는게 아니라 이런 일을 했구나 하면서 참여하는 것을 볼 수 있었음. 나름 관련되신 분의 생각의 전환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함. - 우만자활의 경우 임가공하고 청소를 했는데 청소팀은 고생을 했음. - 임가공 참여자들과 이야기를 했는데 자활이 취업, 일자리 상담에서 여러가지 역할을 하고 어떤 분들이 어떤일을 하시는지 보시는게 좋겠다는 이야기를 전달했음. - 보편적인 이야기는 참여 시 행사참여 수준으로 왔었는데 막상 체험을 해보니 새로운 부분을 많이 봤다는 의견이 많았음. 기회가 되면 한번 더 하면 좋겠음. - 굵터는 참여자들의 만족감이 높았음. 도예 체험도 만족감이 높았음. - 복장에 관한 부분이 제대로 전달이 안된 부분이 있어 참여자들이 어려움을 겪기도 함. - 힘든일을 하면 불만족감이 많긴 했으나 체험내용은 의미가 있었다고 판단됨. - 체험을 해보니 홍보를 좀 더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음. 특정 타겟 대상으로 홍보를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음. - 시의원, 공무원(읍면동) 들을 대상으로 하는 체험, 홍보활동을 하면 좋겠음.

회의 결과

- 내용에 불만족한 부분이 있었음.
- 우선순위 선택을 하도록 한 것이 문제가 있었음. 향후 참여자들의 욕구가 중복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선순위 신청을 받지 않고 임의 배정하는 것이 합당할 것임.
- 체험처마다 위원을 한명씩 배치해서 같이하면 좋겠음.
- 비누체험의 경우 체험이 어렵고 힘들지 않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음.
- 모든 사업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사전 공지 때 일자리 체험이라는 것을 충분히 공지해야 함.
- 일자리나 고용창출이 아니라면 복지관들도 참여 가능함.
- 설문내용에 직업상담사이니 복지일자리에 대해서 안내할 수 있겠다는 답변이 있었음. 복지일자리에 대한 이해가 향상된 것을 알 수 있음.
- 사업단에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도 필요할 것임.
- 내년도 체험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복지일자리 전체적인 안내지를 만들어서 배부를 하면 더 효과가 있을 것임.
- 향후 간담회나 설명회를 추가로 하면 좋겠음.
- 장애인 일자리 영역도 좀 더 적극적으로 연계하면 좋겠음.

나. 2017년 수원시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계획 변경 및 과정평가 모니터링

※ 첨부1. 2017년 수원시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계획 변경 및 과정평가 모니터링 의견정리

3. 기 타

가. 차기회의 일정

- 일 시 : 2017. 8. 22.(화) 16:00
- 장 소 : 수원시휴먼서비스센터 중회의실

회의사진

